

비시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 13:16-37

1. 서론(13:16-25)

바울의 설교는 첫째 (행 13:16-25):에서 구약에서 기술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그 역사의 핵심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이었다. 이 개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삼하 7:12에서 그의 씨가운데 왕을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언급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다.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증거하였으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답이로 예수님은 그가 신들메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거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세례를 받아야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너무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다.

2 십가와 부활 (행 13:26-37):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이 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다.

첫째, 십자가

- 26 형제들아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밋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두가지 중요한 사실은 첫째는 구원의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들이 지은 죄이다. 그들의 죄는 죽일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죽인 죄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함께 그 죄에 동참한 자들이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것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다.

- 29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계시한 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판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린자마다 저주를 받은자” (신명기 21:23)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처럼 십자가는 항상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계시 해 준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 부활

- 30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 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씩음을 당하였으되
- 37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며 사도들에 의하여 그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위하여 성경의 세구절을 통하여 반복해서 강조한다.

3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라는 시편 2:7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그위가 견고케 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은 부활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34절에서 거룩하고 미쁜 은사란 이사야 55:3의 인용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부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영원히 지켜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3)

35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자가 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는 시편 16:10을 인용한 것은

다윗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었지만(36) 하나님이 살리신 다윗의 자손(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37)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 부활은 이론으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같이 참여했던 사도들)이 여러 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증거한 사실이다. 또한 바울 자신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한다 (32-33절참조).

3. 결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이 약속 되어 있다(행 12:38-41)

첫째, 죄 사함,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은 율법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모른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사죄의 십자가를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를 깨닫게 도와 주어야 한다.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제의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숙한 경고를 발한다.

그는 청중에게 예언자들의 위협적인 경고를 상기시킨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하박국을 인용한다.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복음이 바로 증거되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한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다(44).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